

7/9(금) 다니엘 묵상 35

다니엘 8:18-27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우며 꿈에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해석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어루만지심

다니엘서 7장 이전의 다니엘의 모습은 초인적인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비취집니다(단 1장, 6장).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 6장의 나오는 그의 모습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믿음을 보여줍니다(단 6: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지만,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보여지는 다니엘의 모습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단 7:15,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리 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단 8:18,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단 8:27,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전과는 달리 매우 인간적인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올바른 믿음과 신앙의 정절에 관한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강인한 다니엘이었지만 그도 때로는 미래에 대한 일에 있어서는 마음의 근심과 또 육체적으로는 지쳐 잠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북이스라엘 시대 아합과 이세벨 때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보는 듯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엄청난 믿음과 강한 능력을 소유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하루 아침에 낙심하고 도망쳐 남쪽 지방의 브엘세바에서 하루 길을 더 들어가 작은 로렘나무 아래에서 누워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음식을 주어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5절-8절, “로렘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두려움에 빠져 정신을 잃고 쓰러진 다니엘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에피파네스의 최후

계속해서 천사는 슷양(메대와 바사의 페르시아)과 슷염소(헬라제국)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네 개로 나뉘어진 헬라 제국의 마지막 때에 한 왕(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이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23-24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천사는 에피파네스의 힘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또 천사는 에피파네스의 교만과 함께 그가 당할 비참하고 처량한 최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에피파네스는 그의 오만한 모습과는 달리 역사에 따르면 처량하고도 처참하게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카비상 6:1-16; 마카비하 9:1-29). 이는 결국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우리의 삶과 죽음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탄의 운명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창 3:15).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환란과 고난 중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다니엘 선지자를 사랑으로 돌보신 것처럼 여러가지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환란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고난 속에서 약자인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역을하고 원망스러운 모든 솔직한 마음을 올려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했습니다. 시편 109편을 우리는 다윗의 대표적인 저주사로 분류합니다(시 109:14-15, “여호와와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하지만 이 저주사는 말그대로 상대를 복수해 달라는 심보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게 가했던 혹은 가하고자 했던 방식대로 그들을 처벌받게 해달라는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다윗의 저주사가 일반적인 저주와 다른 것은 그가 직접 복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과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대로 그의 원수를 하나님의 뜻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전세계 박해받는 성도:** 전세계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고 신앙으로 인해 박해 받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부서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